

바이오경제 춘계대회 개최

바이오경제포럼이 5월15일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KOREA 바이오경제포럼, 2012 춘계대회 및 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21세기 생명공학을 위시한 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기술(BT)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조동성 교수가 <한국 바이오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강연을 진행했고, <바이오경제시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KIET 최윤희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서진호 교수는 <바이오화학의 필요성과 발전전략>에 강연했다.

또 녹십자 이병진 사장은 <바이오/제약 시장의 현황 및 녹십자의 글로벌 전략>, 서울대학교 손정익 교수는 <그린바이오 융합 식물공장>, 삼정KPMG 김형진 상무는 <바이오와 메디컬이 열어가는 헬스케어 생태계>를 발표하는 등 바이오산업 관련 산학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지식경제부 지원 아래 KOREA 바이오허브 구축(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융합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정책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통해 미래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바이오허브 구축사업의 참여기관인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는 국가 바이오정책 개발의 싱크탱크로서 Korea바이오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선 기자>

<화학저널 2012/05/17>